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Inquiry for Designing Competency-Based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s

최 윤 희^{1*} Yoon-Hee Choi¹ (yooni@hanbat.ac.kr) | ORCID: 0000-0003-0273-9899

¹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초빙교수(Visiting professor, Hanbat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 ABSTRACT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비교과 교육과정이 역량 함양을 위해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를 할 때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역량과 대학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을 바탕으로 학생활동 중심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에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의적이고 현장에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강조해야하며, 학생들의 개인화된 학습과 실전 경험을 중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외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유연하고 혁신적인 운영과 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실질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학습 경험을 강조해야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선택과 결정을 중시하며, 교수자는 학습목표와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해야 한다. 즉 학습자의 자율적 참여와 실질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학습 경험과 협력 체계가 필요하며, 교육과정 설계는 초학문적 융합교육과 연계된 통합적인 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 제 어: 역량,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 설계, 학생활동중심

Key words: competency, competency-based extracurricular education curriculum, design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curriculum, student-centered activitie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논의는 최근 10여 년간 대학의 국책사업과 대학역량진단 평가 등에서 ‘역량’ 교육이 쟁점이 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대학에서의 역량기반 교육의 특징은 지식 이해에서 지식 활용으로의 전환, 효율성 기반 성과에서 효과성 기반 성과 강조,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전공별 교과과정에서 탈피한 학제 간 융·복합 교과과정의 체계화, 평생교육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와 믿음으로 비교과 교육과정을 확대시키고 있다. 대학에서 향상 시켜야 할 핵심역량은 ‘각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역량’으로 제시되어 있다[1]. 이러한 핵심역량은 교육과정이 능력 중심 및 역량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촉진하고자 한다. 대학에서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은 주로 학생들에게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다. 몇몇 대학은 비교과 교육과정을 일부 졸업이수 조건에 포함시키거나 장학금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확대는 학생들에게 많은 핵심역량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대학(창원대, 한밭대)에서는 졸업이수조건에 일정한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를 포함시키거나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내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울지대, 대구대, 한밭대) 하는 대학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대학생의 자기계발이나 심화학습의 기회를 대학이라는 공적인 영역으로 수렴한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2]. 또한 여러 대학에서는 전공-교양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비교과 교육과정을 대학차원의 인재상 등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은 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하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이면서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에 비해서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과의 관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특정 프로그램이 해당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또는 향상시켰는가 될 것이다.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어느 핵심역량에 연결시켰는가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은 해당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과 해당 핵심역량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비교과 교육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학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계획서에는 해당 핵심역량을 기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모두 실무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해당 핵심역량과 관계가 있는지를 걸러주는 단계가 없다. 실무자에 의해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해당 핵심역량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해당 프로그램이 해당 핵심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지는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특정 핵심역량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하는 핵심역량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운영부서에 신청한 핵심역량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르고 계획과 실제운영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특정 프로그램이 특정 핵심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3]. 이를 보완하기 위해 S 대학은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위계를 설정하고 비교과 교육과정을 프로그램 특징에 따라 난이도의 기준을 정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계획 및 결과를 종합검토해서 해당하는 핵심역량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3]. 이는 대학에서 제시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특징들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대학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들을 도출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학에서의 역량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점검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과 교육과정은 대학의 핵심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각 대학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목표가 설정되고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비교과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점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점검지표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둘째, 학생활동 중심의 비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II. 역량과 비교과 교육과정의 연계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지식기반사회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4]. 첫째,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질 높은 인력을 사회에 제공해야 하며 기존 지식을 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가치창출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내용지식을 넘어서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등이 요구되는데 이는 지식 내용 중심의 분과주의 교육과정 구성방식으로는 어렵다. 둘째, 지식 기반사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고 현장경험을 통해 얻은 실용적 지식을 통해 구체적 현장에서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이것은 대학교육이 기술적 지식, 직업세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학은 기존과 다르게 대학 밖의 다양한 기관들과 경쟁해야 하며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해서 외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해 다른 지식생산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위와 같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특징에 따라 비교과 교육과정과 교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운영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비교해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기술하겠다. 먼저 운영적인 면에서는 핵심역량에 기반 한 비교과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2]. 비형식적 교육, 학습자의 개별성 반영, 전인적 성장 지향, 교과와의 연계, 체험 중심, 협동적 집단, 자발적 참여, 사전-체험-사후의 명확한 시행, 융통성 있는 운영, 대안적 평가의 적극적 활용이다. 이 같은 전제조건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부서에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2].

- 성적이나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이수 등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비교과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전에 학생 대상 진단이나 요구조사를 실시한다.
-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의 직접적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집단으로 구성한다.
-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 사전-체험-사후 라는 단계에 의거하여 설계한다. 즉 일회성 프로그램은 지양한다. 프로그램은 기초-심화-응용 등으로 연속성 있게 설계하는 것을 추구한다.
- 시간 배정, 장소 및 교수자 선정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한다. 이 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교육기부를 활용하도록 한다.
- 학생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정이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한다.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차후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반영한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해당하는 역량을 표기하고 있다. 이는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학습경험은 해당 역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5].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의 핵심역량에 따라 비교과 교육과정을 분류하고 있어서 대학에서의 비교과 교육과정은 대학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역량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새로운 역량 획득 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역량의 향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핵심역량에 기반해서 개발, 편성,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대학 교과 교육과정과 역량을 연계시키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6]. 또한 핵심역량 진단결과를 활용해서 비교과 교육과정을 핵심역량과 강하게 연결하고 있었다[7]. 예를 들면 특정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역량 향상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교과중심, 내용중심에서 벗어나 능력중심, 역량중심의 교육[8]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평가의 요소에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체제 구축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평가의 요소에 해당하는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체

제 구축 운영' 을 평가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6]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교육부 평가편람에서 예로 제시되어있는 핵심역량들(의사소통 능력, 협동능력 등)은 일반적인 역량으로서 교양교육이든 전공교육이든 어느 교육과정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다. 특히 협동능력,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능력과 같은 정의적 특징들을 역량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는 핵심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교양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전공 교육과정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전공능력만 개발하면 된다는 논리다. 이 같은 논리는 대학의 핵심역량은 교양교육이나 비교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아니라 대학 교육 전체의 교육목표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핵심역량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중요한 것이고 꼭 양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전공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로도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체제 구축 운영' 을 강조하면서도 해당 핵심역량의 함양 여부와 정도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교육부의 관심이 적다. 역량이란 한 과목에서도 여러 역량과 관련되고 개발 가능한 중첩성과 총체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과목과 역량의 짝짓기와 숫자 점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핵심역량 제고에 대한 올바른 측정이 되기 어려우며 매우 형식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대학에서 핵심역량은 비교과 교육과정과 짝지음을 통해 관련 교과목이 해당 핵심역량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비교과 교육과정이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들은 그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험 중심으로 집단 구성과 자발적 참여에 의거하여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는 교육' 이다[2]라고 정의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인적 발달', '체험 중심으로', '집단 구성과 자발적 참여', '융통성 있게' 라는 표현을 교과 교육과정과의 내용과 운영간의 차이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Ⅲ.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1.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

역량 기반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데에 비해서 해당 비교과 교육과정이 역량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량의 개념이 모호할 때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역량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인다[9]. 다음에서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대안적 교육과정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조건 및 과제를 실천적 지식, 학습과정에서의 반성적 성찰, 학습자의 역량성취 수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 첫째, 지식 기반사회에서 강조하는 지식은 이론의 습득 및 이해에 국한되기보다 실제적 맥락에 접목해서 수

행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융·복합 사고나 문제해결과 등과 같은 학습자의 실천적 지식 습득을 강조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학습과정에서의 반성적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적절한 교육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은 학습자의 수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역량성취 수준을 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각 교과 내에서 역량의 성취 수준을 제시하고 평가로까지 연계된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역량에 대한 평가는 교과 및 수업과 유리되어 있다. 수행의 수준은 역량의 도달 수준으로 귀결되므로 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절하게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역량 도달 정도를 평가하는 절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요구와 결과가 직접적으로 수행 향상과 직결되는 학습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성과는 투입한 만큼의 성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교육과정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에 따라 미래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자는 입장은 기존의 교과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자는 것은 아니다. 교과의 틀은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간 연계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학문의 구분에 따라 분과로 편성되고 운영되었던 교과들을 역량을 중심을 통합적으로 재구조화 하자는 것이다[9].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이와 같은 논쟁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것이지만 대학에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등장할 때부터 역량의 개념,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목표 등에 대해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9][11][12][5][13]. 이에 비해 대학에서의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와 기능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자주 논의되고 있으나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실적 보고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졸업 이수 조건에 해당할 정도로 비교과 교육과정의 위상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대학 재정지원 사업 보고서를 위한 성과만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는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의 3단계는 다음과 같다[6]. 1단계에서는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누구나 습득해야 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미래 사회와 개별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나 대학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 핵심역량의 개별적 요소보다는 그 요소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가 중요한 물음으로 제기되었다면 우리는 그 요소 배후의 이념, 철학, 기본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심역량 요소를 무차별, 무의미하게 열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핵심역량과 전공능력을 둘로 나누어 진단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비

교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에 대한 정의,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 어떤 사람이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14]. 2단계에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핵심역량이 체계적으로 함양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내용이며 그에 상응하는 교수 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환경분석이나 요구분석을 할 때는 교육내용이 교육내용이 공급자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분석이나 요구분석을 실시할 때는 수요자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특정 기술, 지식, 능력을 획득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3단계에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료화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를 확인한 후 관련 핵심역량에 지정되어야 한다. 또는 관련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해당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는 ‘타당한 절차’가 필요하며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유지 및 중단은 교육과정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서 개설, 폐지, 개선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2. 학생활동 중심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설명식 수업보다는 주어진 과제 및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 전략 등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경험의 제공방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5]. 그래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먼저 직업에서 활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수행할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한 다음에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역량을 획득하였는지 실제 수행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9]. 지식활용과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한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로의 교육적 패러다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6]. 즉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어야 하며 역량기반 교육의 핵심은 학습자가 해당 활동을 통해 목표로 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을 보완해줄 수도 있지만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동이 핵심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역량 개발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활동을 제공할 것인가에 쏟는 관심만큼 그 활동을 통해 어떠한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9]. 이때의 역량은 개인의 내적인 행동특성을 외적으로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규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15]. 역량을 행동지표로 표현하는 것은 측정가능하고 개발 가능한 역량과 그렇지 못한 역량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을 해당 상황에 부합되는 행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측정과 평가가 가능해 질 것이다[16].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에서 학생의 활동을 강조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제안을 두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5]. 첫째, 다양한 학습 경험에 대한 강조이다. 이것은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위해 여러 기관과의 연계 및 실

무경험과 현장경험에 대한 것이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필요에 맞게 학습 조절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를 들 수 있다. 학습자는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향상시키며, 자율적으로 학습 과정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0]. 첫째, 교육목표와 연계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전공역량과 교과목 간의 연관성이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내용적 관점에서 학년 및 전공/교양/비교과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과 평가의 연계를 위해서 교수자는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수행준거와 교수학습, 평가방법을 연계해서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역량에 따라 학습목표와 수행준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의, 토론, 학생발표, 실험/실습 등 다양한 수업방식과 학습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있어야 한다. 즉 수행의 성취수준과 평가가 교과내 수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학습목표 및 수행준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공적인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수업설계를 위해 교수자들에게 수업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위의 두 연구의 제안을 종합해보면 역량기반 교육과정 특징에 따라 학습자의 실질적인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학습경험에 대한 강조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있어서 학습자의 선택과 결정이 작용하며 교육체계 간에 서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학습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향상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설계는 설계자가 어떤 의도와 철학을 가지고 수행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핵심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는 교과 내,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 있어야 하며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및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초학문적 융합교육이 요구된다[9](재인용).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비교과 교육과정이 역량 함양을 위해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를 할 때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과 교육과정이 해당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핵심역량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그동안 분과로 편성되었던 교과들을 역량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조절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학역량기반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6]. 첫째, 대학교육이 학문 분과 중심의 지식전달 교육에서 지식활용과 창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량 기반 교육은 ‘무엇을 아는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로의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둘째, 대학교육과 현실세계와의 괴리를 역량기반 교육을 통해 일상의 삶의 현실과 직업세계, 산업현장 등과 유기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대학교육이 직업훈련을 도맡는다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에 대한 정의와 합의를 강조한다. 직업교육은 개인이 사회와 직업에 대해 성찰하고 직업에서의 직무를 통해 자신의 삶의 선택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17]. 셋째,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은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른 인재상,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과정 운영체계와 평가 및 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한다.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요건들을 도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비교과 교육과정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 교육과정의 정체성을 명칭에서 드러내야 한다. 비교과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공교과 교육과정과 구별하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볼 수 있다. 비교과 교육과정의 위상과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고유명칭이 필요하다. 둘째,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점검 및 인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프로그램이 인증(accreditation)을 받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내·외부 구성원에게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그램 유지의 당위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 유지 및 지원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신규 또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다[18]. 셋째, 프로그램 인증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자체적인 점검과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먼저 연구 하고 프로그램 품질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외부 평가자들이 내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나 효과적인 판단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18].

참고문헌

[1]	교육부(2021).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편람.
[2]	이림(2018). 대학교육에서의 비교과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교육문제연구, Vol.31, No. 4. pp.155-182 .
[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혁신센터(2019).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 개발 연구보고서.
[4]	박민정(2008).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Vol.26, No.4. pp.173-197.
[5]	박민정(2009).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과 비판적 쟁점분석: 내재된 가능성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Vol.27, No.4. pp.71-94.
[6]	손승남(2021). 고등교육에서의 역량기반 교육과 핵심역량.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5, No.1, pp.11-30.
[7]	이경진 · 최나영.(2021). 사례 분석에 기반한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의 시사점 탐색. 교육혁신연구, Vol.31, No.2. pp.197-22 .
[8]	박현정 · 신택수(2007). 고등교육기관 핵심 역량의 구조화 및 경쟁력 지표의 개발과 적용: S 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Vol.8, No.2. pp.21-53.
[9]	서경혜(2020).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딜레마. 교육과정연구, Vol.38, No.4. pp.5-31.
[10]	강지혜 · 이병길 · 권승아(2019). 대학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교육과정-평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설계 전략의 탐색. 교육공학연구, Vol.35, No.2. pp.527-549.
[11]	소경희(2006). 교사 전문성으로서의 ‘연계적 전문성’ 논의가 중등교사양성 교육과정에 주는 함의. 교육과정 연구, Vol.24, No.2. pp.277-297.
[12]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교육과정연구, Vol.25 ,No.3. pp.1-21 .
[13]	김대중 · 김소영(2017).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과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쟁점. 핵심역량 교육연구, Vol. 2, No. 1 . pp. 23-45 .
[14]	Barman, A., & Konwar, J.(2011). Competency based curriculum in higher education: A necessity grounded by globalization. Romanian journal for multidimensional education, Vol.3 , No. 6 . pp. 7-15.
[15]	조소연(2002). 능력주의의 실천대안 : 역량모델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인사행정, Vol. 10 . pp.64-72 .
[16]	이재경(2002).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에 대한 고찰: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정 체계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Vol.18 , No. 4 . pp.25-56.
[17]	유성상 · 이재준 · 남유진(2015). 역량기반 대학교육 담론의 한계 및 대안적 논의 탐색. 평생학습 사회, Vol. 11 , No. 2 . pp.21-52 .
[18]	Lubinescu, E. S., Ratcliff, J. L., & Gaffney, M. A.(2001). Two continuums collide: Accreditation and assessment.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Vol.2001, No.113. pp.5-21 .